
숙련기술 활성화 방안

-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(2023~2027년) -

2024. 1.

목 차

I. 숙련기술 장려 정책 현황 및 진단	1
II. 추진 방향 및 과제	3
III. 추진과제	4
1. 우수 숙련기술인의 숙련기술 전수를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	4
2.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통해 숙련기술 저변을 확대 하겠습니다	7
3.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	9
붙임1.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	11

I. 숙련기술 장려 정책 현황 및 진단

1 숙련기술 장려 정책 현황

- '숙련기술'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함
 - 이는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의 핵심 기반
- 그간 정부는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우수 숙련기술 보유자를 명장, 기능한국인 등으로 선정, 장려금 등 지원
 - * [22년 기준] 명장 680명, 우수숙련기술자 623명, 숙련기술전수자 140명, 기능한국인 190명
 -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교수*로 위촉하여 중소기업·직업계고 대상으로 숙련기술 전수 및 기술향상 지원
 - * [22년] 산업현장교수 1,055명이 중소기업 1,602개소 및 특성화고 414개소 대상 전수 지원
- 직업계고 청소년 중심으로 전국·지방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숙련기술 수준 향상 및 기술인의 사기 진작 도모
 - * [전국 대회] (22) 53직종, 1,797명 [지방 대회] (22) 53직종, 4,986명
 - '22년 국제기능경기올림픽 참가, 종합 2위 달성*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
 - * 46개 직종 51명 선수 참가(금 11, 은 8, 동 9, 우수 16)
 - 또한, 숙련기술체험관*(20.11월) 건립으로 청소년이 다양한 숙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고 진로교육 지원(22년 3,438명)
 - * 전통·기초·첨단 숙련기술 3개 테마의 10개 체험실, 숙련명품전시관 등으로 구성
- 숙련기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선정·홍보, 숙련기술단체의 다양한 기술장려 활동 지원(22년 6.5억원 지원)
 - 명장 등 매년 성공한 우수 기술인을 '스타기술인*'으로 선정, 특집 강연, 유튜브 영상 제작·송출 등 숙련기술의 중요성 홍보
 - * 대한민국명장,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숙련기술인 중에서 성공스토리를 가진 인물을 발굴하여 스타기술인으로 선정·홍보(22년 5명 선정)

① 신기술 분야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저조

- 디지털·신산업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및 지원이 시급하나,
 -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* 전통산업 중심의 심사기준으로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이 전통산업 및 공예 직종에 편중**
- * [23년 숙련기술진흥원 설문조사] 숙련기술 관심있음(63.9%), 경제 중요한 영향 미침(92.6%) ↔ 숙련기술인 위상강화 필요(71.1%)
- ** [최근 3년간 명장 선정 비중] (전통산업) 69.8%, (공예) 27.9% ↔ (신기술) 2.3%

② 높아지는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비해 숙련기술 전수활동은 제한적

- 그간 생산제품은 동일 주력상품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, 균일적인 기술에서 다원화된 기술로 변화하여
 - 통일적인 외부교육에 의존하기보다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숙련기술의 전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
- < 70:20:10 법칙(Jay Cross) > '학습'의 10%는 교육·훈련 등 형식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나, 20%는 타인과 함께 일하는 협업에서, 70%는 일을 통한 경험·성찰로 이루어짐
- 반면, 전수 인프라 부족 및 기업 수요와 숙련기술인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숙련기술인의 전수활동은 저조

③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낮은 관심과 참여 감소

- 숙련기술을 제조업에서 직업계고 졸업생이 취업하는 일자리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,
 - 학령인구 감소로 참여인원이 감소중인 기능경기대회도 직업계고 중심으로 운영*되어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사회적 저변 확대 필요
- * [전국·지방대회] 직업계고가 선수의 75%, 입상자의 73% 수준('22년 기준)

❖ 산업 기술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**산업경쟁력 제고**를 위해서는 **숙련기술의 축적·향상**과 **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향상** 필요

☞ 이를 위한 「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」 수립·추진

Ⅱ. 추진 방향 및 과제

목표

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



정책과제

1. 우수 숙련기술인의 숙련기술 전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①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확대
- ② 숙련기술 전수 확대
- ③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확충

2.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통해 숙련기술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① 참여 채널 다양화를 통한 국내 기능경기대회 활성화
- ② 산업현장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민간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
- ③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경쟁력 제고

3.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.

- ① 숙련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
- ②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
Ⅲ. 추진과제

1. 우수 숙련기술인의 숙련기술 전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❖ 산업현장 기술변화에 발맞춰 우수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숙련기술인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기반 확충

①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확대

- **(명장·우수 숙련기술자)** **全 산업분야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명장이나 우수 숙련기술자를 폭넓게 발굴**(‘24~)
 -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직종 신설*을 통해 기술전수 수요가 증가하는 신기술 분야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
 - * 기존 직종에 신기술 분야가 포괄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직종 범위를 개편
↳ 예) 신기술인 그래픽디자인 3D디지털아트게임 분야 포괄하도록 기존 시각디자인 직종 개편
 - 산업현장 경력* 이외에 연구개발·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 다양한 활동이력을 경력으로 인정
 - * 현재 명장은 15년 이상, 우수 숙련기술자는 7년 이상의 산업현장 경력 필요
- **(기능한국인)**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**중소·중견 기업인으로 성장한 숙련기술인은 청소년기 기술분야 진입경로에 관계없이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학력 요건 완화***(‘25~)
 - * (現) 직업계고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한정 → (改) 중졸·초졸, 일반계고 특화과정, 직업전문학교 수료자로서 우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 추가
- **(숙련기술전수자)**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숙련기술이 전수되도록 **산업화 응용 가능 직종* 확대, 무형문화재 유사직종은 단계적 감축**
 - * 예) 절삭가공, 기계생산관리, 식품가공, 섬유가공, 실내건축 등
 - 뿌리·섬유·기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(ISC)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內 제조업 근간이 되는 숙련기술 전수 수요를 적극 발굴
 - 숙련기술 전수자 이미지 제고를 위해 명칭 변경 추진
 - * 예) 숙련기술전수자(숙련기술전수대상자) → 숙련기술전승자(숙련기술계승자)

② 숙련기술 전수 확대

○ **(산업현장교수 개편)**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**수요와 성과 기반 지원 제도로 개편**(‘24~)

* 기술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오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우수 숙련기술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제도, ‘22.12월 기준 15개 분야 산업현장교수 1,052명

활동 사례

- **(A기업)** 유약 제조실 환경정보(온·습도) 트렌드 모니터링 및 분석기술을 전수받아 **공정불량률 감소**(월평균 7.5회 → 6.5회)
- **(B기업)** Press용 Robot system 구축 기술을 전수받아 **제품 생산성 제고**(시간당 생산량 532개 → 570개)

- **(교수풀 확대)** 인공지능(AI) 등 신기술 직종 발굴, 명장·기능한국인 선정자 우대* 등으로 교수 인력풀 확충

* 직전연도 명장, 기능한국인 선정자는 최소 경력요건 충족시 별도 심사없이 교수 선정

- **(현장수요 맞춤형 전수)** 온라인(마이스터넷)을 통해 기업의 기술전수 수요를 상시 조사하고 기업이 **산업현장교수를 직접 선택**하도록 개편

- **(성과 관리)** 기술전수 직후 기업이 **산업현장교수를 평가***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**개인별 전수시간을 차등화****하여 기술전수 품질관리

* 전수받은 기술의 적합성, 기업 생산성 기여도, 기술전문성 수준 등을 평가

** (現) 개인별 年 300시간 한도 → (改) S(400시간)·A(300시간)·B(200시간)으로 등급별 차등

- **(사업 효율화)** 타 사업*과 중복되는 직업계고 기술전수는 폐지하고,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전수 사업에 집중, 법적 지원 근거 마련(‘24.下~)

* 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원의 숙련기술전수사업, 숙련기술 스타트멘토링 사업 등

○ **(전수역량 강화)**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·2급 과정에 준하는 맞춤형 교수기법 교육으로 기술전수에 필요한 전수역량 강화(‘24~)

○ **(숙련기술인 연계 기술교육)** 숙련단체를 통해 분야별 멘토링 인력풀* 구성, 청소년 대상 기초기술 전수 및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선택 유인(‘23~)

* 대한민국명장회,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, 기능한국인회, 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 등 숙련기술단체 내 우수 숙련기술인이 기술분야별(건축, 공예, 기계가공 등)로 멘토풀 구성

- 우수 숙련기술인이 **학교 등으로 찾아가서** 숙련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**체험형 프로그램*** 운영(‘23. 18,200명 → ‘27. 30,000명 이상)

* (예) 드론헬리콥터 조립으로 기계조립기술과 드론 및 헬리콥터 제어원리 이해

③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확충

○ **(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)** 직업계고 학생, 중소기업 재직자 숙련기술전수 및 역량강화를 위해 숙련기술진흥원* 추가 건립(~'26)

* 주요사업: 직업계고 대상 우수 숙련기술인의 숙련기술 전수, 숙련기술전수 멘토링 (기술지도·진로상담),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숙련기술 전수 등

- 숙련기술 전수 대상인 직업계고 학생과 우수 숙련기술인이 많고 전수사업 참여도*가 높은 영남권(울산)에 건립

* (직업계고 학생 비율) 영남권 25.4%, (우수 숙련기술인 비율) 영남권 33%
(전수사업 참여도) 영남권 29.3%, 호남권 25%, 중부권 21.8%, 수도권 21.2%

- 조선업·자동차산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수요맞춤형 기술전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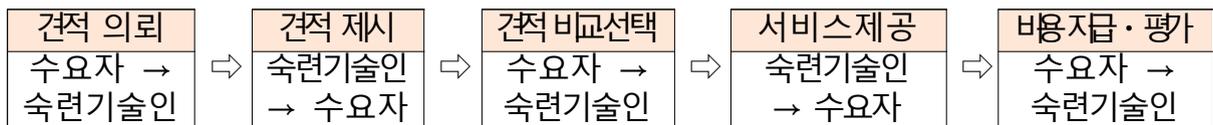
○ **(디지털 인프라 확충)** 인재관리부터 기술전수 지원까지 숙련기술 콘텐츠가 단일 플랫폼으로 서비스되도록 차세대 마이스터넷(숙련기술인 포털) 구축('25)

- (인재관리)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 정보 제공과 개인별 전수활동 이력*을 관리하는 DB 구축

* 숙련기술 멘토링,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, 산업현장교수 활동, 온디맨드 활동 등

- (숙련기술인 매칭지원) 숙련기술 전수, 컨설팅 등 현장의 기술수요와 숙련기술인을 매칭하는 온디맨드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여 민간의 숙련기술 거래 활성화

< 온디맨드 플랫폼 운영 방식 >



- (온라인 체험관) 예비 숙련기술인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과제별 영상을 제작하여 시·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기술체험 지원

- (디지털 아카이브) 숙련기술 자료 중 보존가치가 높거나 기술 전수에 활용성이 높은 자료*를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지원

* 국내·외 기능경기대회 직종별 자료 및 영상, 숙련기술 전수사업 교재 및 영상

2.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통해 숙련기술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❖ 국내·민간 경기대회 참여 활성화와 국제기능올림픽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변 확대

① 참여 채널 다양화를 통한 국내 기능경기대회 활성화

- **(산업수요 대응 직종개편)** 산업계 수요가 적은 직종은 폐지(조적·석공예 등), 미래 전망이 유망한 신기술 직종 신설·개편('23~)
 - * (신설) 디지털건축, 모바일앱 개발/ (개편) 미장 → 아트월(실내인테리어)로 개편 등
 - 로봇시스템, 드론제작, 애견 미용 등 폴리텍·전문대생 선호 직종을 신설하여 기능경기대회 참여 확대
- **(축제형 대회)** 참가선수, 대학생, 학부모, 지역주민 등 국민이 함께 기술발전을 즐길 수 있는 축제형 기능경기대회 개최('23)
 - 지역 숙련기술단체 등과 공동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*, 드론 축구 등 미래세대가 관심이 많은 미니 기능경기대회 개최
 - * VR/AR 체험·시연(용접·송전탑 전기배선), 드론 전시, 선체모형조립 등
 - 콘텐츠 공모 및 퀴즈 이벤트 실시, 지자체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병행
 - * 가을밤 야외 음악제, 지역 음식 만들기 체험
- **(취업지원)** 대회 기간 중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개최, 개별기업과 1:1 취업 협약체결, 우량 기업 관계자 기능경기대회 참관 확대 등을 통해 기능경기대회 참여자·입상자 취업지원('23~)
 - *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능경기대회의 직종 개편 등으로 취업 지원 강화
- **(지방기능경기 광역화)**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회 참여인원 감소*를 고려, 현행 도별 개최에서 광역화(부울경, 충청권 등) 방안 검토('24~)
 - * 직업계고 학생수: ('10) 466천명 → ('13) 333천명 → ('19) 245천명 → ('21) 241천명
대회 참여인원: ('20) 5,560명 → ('21) 5,357명 → ('22) 4,997명

② 산업현장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

- 급변하는 산업현장 직무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숙련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 기능경기대회* 활성화
 - * '17년~'21년 동안 355개 민간 기능경기대회 개최, 119,380명 참여
- 신기술분야(웹디자인·애니메이션·항공드론제작 등) 및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내 기능경기대회는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부여('24~)
- 민간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기관·단체를 대상으로 기술전수 및 경기운영 노하우 전수 등 전문컨설팅을 제공하여 대회 개최 지원('23)
 - * 공단 기능경기대회 운영 노하우 전수,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출신 기술지도 등

③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경쟁력 제고

- (우수 인재 선발) 국제대회 출제경향을 반영한 과제 출제로 선발 단계부터 국제대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선발('23~)
- (체계적 훈련·관리) 국제대회와 동일한 정기 평가전을 도입하여 훈련 성과를 평가·점검('23~)
 - 대륙별 강세 직종은 해외 전지훈련*으로 실전경험 축적,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신규 장비**로 교체('23. 7.5억원 신설) 등 선수 역량 강화
 - * 프랑스 전국대회('23.9월, 건축·공예), UAE 아시아스킬스 대회('23.11월, IT, 미래기술) 등
 - ** 머시닝센터(CNC밀링), 터닝머신(산업기계 통합제조), 로봇셀컨트롤러(로봇시스템 통합) 등
 - 국가대표 선수·지도위원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던 훈련수당을 국가에서 지원, 지원수준 인상*('23~)
 - * [선수 및 국제지도위원] 월 60만원 → 월 100만원 [부지도위원] 월 20만원 → 월 50만원
- (국제지도위원 역량 강화) 지난 대회 성과 및 선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문성 있는 국제지도위원 선정('23~)
 - * 평가결과가 높을 경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 2~3개 대회 연속 임기 보장
 - 국제대회 참관 지원, 국제경기 후 경기 결과 및 국제기술동향을 정리하여 국제지도위원 경기 노하우를 DB화하고 체계적 관리('24~)
- (국제지원) 개발도상국 대상 전문가 파견, 선수 초청연수 등을 통해 기능경기대회 노하우를 전수하여 기능경기 운영역량 강화 지원('23~)

3.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.

- ❖ 숙련기술 기업·단체 지원을 통한 숙련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향상 지원

① 숙련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

- **(기능한국인 기업 우대)** 기능한국인 운영기업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*(Best HRD)으로 인증받기 수월하도록 심사시 가점 부여('23~)
 - * (Best HRD)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('22년 92개 기업 인증 취득)
 - ** (인증시 혜택)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부여, 정부조달 가점 우대 등
- **(모범사업체 확대)**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기준 개선*, 정부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 확대**를 통해 사업체 선정 확대('24~)
 - * 점수배점 조정 및 심사항목별 세부기준 조정·개선
 - ↳ (예) 사업내 숙련기술인 우대 배점 하향(60 → 50점), 숙련기술 향상지원 배점 상향(30 → 40점), 숙련기술 사회환원도 배점 유지(10점)
 - ** (現) 정기 근로감독 면제(3년),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→ (改) 기능한국인 운영기업의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 시 우대,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 시 가점 부여, 정부조달 가점 우대 등 부처 협의
- **(숙련단체 발굴·지원)** 다방면의 산업분야에서 숙련기술 장려활동이 전개되도록 직종별 기능장협회 등 지원대상 단체 지속 발굴·지원*
 - * 박람회·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, 세미나·강연회 개최, 교육훈련·연수사업 실시 등

②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
- **(숙련기술인의 날)**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·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9월9일을 '숙련기술인의 날'로 지정('23.7)
 - 숙련기술 발전에 공로가 큰 숙련기술인·단체 포상 등 기념행사, 정책포럼, 숙련기술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



- **(숙련기술인 인지도 제고)**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인증서 발급,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재 추진('25~)
 - * 민간 대형 포털(네이버, 카카오)와 협업하여 전자지갑 내 디지털ID 발급, 숙련기술인 인물정보 수록, 지도앱에서 우수 숙련기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정보제공 등
- **(국가대표선수 위상 제고)** 국제기능올림픽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와 선수단 자긍심 부여를 위해 특집기사, 영상 제작 등 홍보('24~)
 - 국제기능올림픽 1·2·3위 입상자를 배출한 직업계고에 입상선수 명의의 기능반 발전지원금* 지원('25~)
 - * 금 300만원, 은 200만원, 동 100만원 지급
- **(숙련기술 홍보)** 홍보업체·홍보전문가 자문을 통해 반기별 홍보사업을 점검하고, 효과성 높은 신규 홍보아이템 발굴('24~)
 - 유튜버 등과 협업*을 통한 영상 제작·송출, 웹툰·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강화
 - * 자동차정비·화훼장식 등 국제기능올림픽 6개 직종에 도전하는 예능형 챌린지 영상 제작·홍보 등
 - 우수 숙련기술인 중 기술과 능력으로 성공한 스타기술인을 지속 발굴하고 청소년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홍보
 - 기특한 기자단*을 대학생·성인까지 확대(現 고등학생)하여 숙련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행사 참여 유인('23)
 - * 기(技)특한 기자단: '기술이 특별한 대한민국 기자단'의 준임말로 숙련기술인 행사 참석 및 인터뷰를 통해 매월 1건 이상 숙련기술 관련 온라인 콘텐츠(블로그, SNS) 제작

추진 과제	일정
-------	----

1. 우수 숙련기술인의 숙련기술 전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

①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확대

① 명장·우수 숙련기술자 제도 개편	
○ 신기술 직종 신설, 활동이력 경력 인정	'24~
② 기능한국인 제도 개편	
○ 기능한국인 학력요건 완화	'25~
③ 숙련기술전수자 제도 개편	
○ 전수 직종 개편 및 수요 발굴	'24~
○ 숙련기술전수자 명칭 변경	'24~

② 숙련기술 전수 확대

① 산업현장교수 개편	
○ 산업현장교수 교수 인력풀 확충	'24~
○ 현장수요 맞춤형 전수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	'24~
○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전수 집중 및 법적 근거 마련	'24.下~
② 전수역량 강화	
○ 맞춤형 교수기법 교육 실시	'24~
③ 숙련기술인 연계 기술교육	
○ 숙련기술 멘토링 추진	'23~
○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	'23~

③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확충

①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	
○ 영남권 숙련기술진 건립 추진	~'26.
○ 지역특화 수요맞춤형 기술전수 프로그램 운영	'26~
② 디지털 인프라 확충	
○ 숙련기술인 인재관리용 DB 구축	'25~
○ 온디맨드 플랫폼 기능 제공	'25~
○ 온라인 체험관 구축	'25~
○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	'25~

추진 과제	일정
2.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통해 숙련기술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.	
① 참여 채널 다양화를 통한 국내 기능경기대회 활성화	
① 산업수요 대응 직종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기술 직종 신설 등 직종 개편 ○ 폴리텍·전문대생 선호직종 신설 	'24.下~ '24.~
② 축제형 대회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험프로그램 운영, 미니 경기대회 개최 ○ 콘텐츠 공모 및 퀴즈 이벤트, 지자체 문화행사 연계 행사 개최 	'23.~ '23.~
③ 국제협력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업박람회 개최 등 기능경기참여자 취업지원 	'23.~
④ 지방기능경기 광역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기능경기 광역화 방안 검토 	'24.~
② 산업현장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	
① 민간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기술분야, 사업내 기능경기대회 가점 부여 	'24.~
② 민간 대회 개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·단체 대상 전문컨설팅 제공 	'23.~
③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경쟁력 제고	
① 우수 인재 선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대회 출제경향을 반영한 과제 출제로 우수인재 선발 	'23.~
② 체계적 훈련·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기 평가전 도입 및 훈련 성과 평가·점검 ○ 해외전지훈련 확대 및 신규 장비 도입 등 선수 역량 강화 ○ 국가에서 훈련수당 지원 및 지원수준 인상 	'23.~ '23.~ '23.~
③ 국제지도위원 역량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성 있는 국제지도위원 선정 ○ 국제대회 참관 지원, 경기 노하우 DB화 	'23.~ '24.~
④ 국제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발도상국 대상 기능경기대회 노하우 전수 	'23.~

추진 과제	일정
-------	----

3.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.

① 숙련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

① 기능한국인 기업 우대		
○ Best HRD 심사시 가점 부여		'23.~
② 숙련기술 모범사업체 확대		
○ 선정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		'24.~
③ 숙련기술단체 발굴·지원		
○ 숙련기술 지원대상 단체 발굴·지원		'24.~

② 사회적 인식 개선

① 숙련기술인의 날		
○ 숙련기술인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 진행		'23.7월~
② 숙련기술인 인지도 제고		
○ 디지털 인증서 발급, 인물정보 등재		'25.~
③ 국가대표선수 위상 제고		
○ 국가대표선수 홍보 영상 제작 등 홍보		'24.~
○ 국가대표선수 명의 기능반 발전지원금 지원		'25.~
④ 숙련기술 홍보		
○ 홍보아이템 발굴, 홍보 영상 제작, 스타기술인 홍보 등		'24.~
○ 기특한 기자단 참여 대상 확대		'23.~